다타라 제철을 운영한 오쿠이즈모의 아홉 가문

에도 시대(1603~1867)의 일본은 수백 개의 번으로 분할되면서 각각 번의 다이묘(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)가 통치했습니다. 번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, 각 다이묘는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가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쥐어주었습니다. 이러한 특권을 대가로 번은 그 이익의 일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.

1700 년대 초부터 오쿠이즈모와 인근 지역에 위치했던 모든 제철소는 아홉 가문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과거에는 토지를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제철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, 1726 년에 이들 아홉 가문이 마쓰에번(오쿠이즈모가 속해 있던 번)의 정식 제철소 경영자(鉄師, 데쓰시)로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. 마쓰에번은 당시 다이묘였던 마쓰다이라 노부스미(1698~1731)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.

각 가문은 사철 채취를 비롯해 목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산림 관리와 숙련된 기술자 채용, 생산한 철의 출하 등 모든 공정을 관리했습니다. 다타라 제철에서 가장 부유했던 네 가문 중 세 가문(사쿠라이 가문, 이토하라 가문, 보쿠라 가문)은 지금의 오쿠이즈모초에, 다나베 가문은 오쿠이즈모와 가까운 지금의 운난시에 거주했습니다. 이들 가문이 거주했던 저택과 정원 대부분은 현재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